

49살 된 삼성, '창업 뜻' 기리는 사랑나눔 봉사

방한용품 세트 전달 등 계열사별 나눔활동

“삼성전자가 1969년 창립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도전과 혁신으로 극복하며 세계적인 IT 기업이 된 것은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이 창립일을 기념해 “올 한 해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5G·AI 기술주 도권 확보 경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쟁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남은 한 해도 최선을 다하고, 새롭고 힘찬 에너지로 내년을 준비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1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9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사장단과 임직원들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창업의 뜻을 기리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목도리, 털모자, 무릎담요, 친환경 핫팩과



1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창업의 뜻을 기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방한용품을 준비하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삼성전자

우치 등으로 구성된 500개의 방한용품 세트는 임직원들의 응원이 담긴 카드와 함께 소외된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도 1일로 각각 창립 45주년과 6주년을 맞아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삼성전기는 이미 10월 한달 간 해외법인과 함께 자원봉사대축제를 진행했으며, 2일에는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임직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수원의 청소년드림센터를 찾아 케이크를 만들고 진로 고민을 상담해 주는 나눔 활동을 벌인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SKB 프로농구 VR로 중계

(옥수수)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에서 '2018~2019SKT5GX 프로농구' SK나이트 서울잠실 홈경기 시즌 전체를 가상현실(VR)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1일 밝혔다.

옥수수는 지난달 13일 SK나이트 홈경기에서 VR 중계를 선보인 이후, VR 중계를 SK나이트 홈경기 시즌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옥수수 VR 중계는 양쪽 골대 밑과 센터라

인에 위치한 180도 광각 VR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화면을 즐길 수 있다. 특히 VR기기(HMD)없이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 한 화면에서 선수별 득점을 확인하면서 농구를 관람할 수 있다.

옥수수 측은 현재 SK나이트 홈 경기장에 옥수수 VR 체험존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를 통해 KB L SKT 5GX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시청하며 채팅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SK나



관람객이 VR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이츠 홈경기 입장권, 버거킹 와퍼세트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차의 뒤늦은 후회



기지 수첩

양성운 (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یشن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AI 등 미래 신기술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단시간에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 당시 경영환경이 어렵다면서 한전 부지 매입에 10조원이란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어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의 파업 등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미지 하락을 불러왔고, 결국 글로벌 시장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사상 최악 수준의 '어닝쇼크'를 기록했으며 기아차 역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면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비슷한 시기 9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에 투자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지리자동차는 현대차그룹에 비해 기술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지리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지리자동차는 중국시장에서 124만8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중국 전체 6위, 토종 자동차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무려 59%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매입이 아닌 이탈리아와 미국 합작자동차 기업 피아트크라이슬러(FCA)나 볼보 등을 인수했다면 현재의 위기를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정یشن 부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와 자율주행, 친환경차에 대한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어 현대차그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일 (음 9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순조롭게 해결. 6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별로 없어 아쉽다. 72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84년생 발을 두려워하면 좋은 꼴을 얻을 수 없다.
- 소** 49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61년생 가족은 서로만 들어 가는 것이다. 73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85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간직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 호랑이** 50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6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74년생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망설이기가 놓칠 수 있다. 86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 토끼** 51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매사 마음먹기 나름. 75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8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 용** 52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64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겠나. 76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8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 뱀** 53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65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해야. 77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디라. 89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는 법.

- 말** 54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66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78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90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 양** 55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67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주어진다. 79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91년생 재추진이 필요한 날이다.
- 원숭이** 56년생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68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 사용. 80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92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머리가 혼란스럽다.
- 닭** 57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디라. 69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제 거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81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93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 개** 5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이다. 70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82년생 보라색 옷으로 기분전환을 해 보자. 94년생 여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면 행운.
- 돼지** 5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71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8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9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



김상회의四季

인생길의 목표를 정하라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즐기는 음식 역시 다르다. 누구는 공부에 뛰어나고 누구는 기술을 잘 다룬다.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누군가는 재물을 모으는데 재주가 있다. 서로 살아가는 형태도 다르고 성공하는 방식도 다르다. 또한 성공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다. 일이 풀리는 때가 다르고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흔하게 한다. “저 사람은 큰집 샀는데...” “친구는 벌써 부장인데...” “옆집 아이는 취직했는데...” 사람인 이상 부러움의 시샘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불만 그 자체에 깊이 빠져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부른다.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사주에 있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고 하자. 운전을 빠르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다. 초보 운전자가 그런 사람이 부럽다고 고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서 목격자는 고사하고 병원으로 가게 된다. 체력 좋은 사람은 부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할 것이다. 몸 약한 사람이 그걸 버려야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운전한다면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질 게 뻔하다. 자기 체력이 약하다면 중간 중간 쉬면서 가는 게 맞는 방법이다. 살아가는 속도와 방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성공에 도달하는 시기도 서로 달라진다. 남이 잘 간다고 운세가 죽어있는 시기에 일을 크게 벌이면 더 망하게 된다. 쉬면서 내공을 쌓고 있으면 운세가 살아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모아놓은 에너지를 쏟아 낼 때이다. 남이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한다고 남을 시샘하느라 속 썩지 말고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으면 나에게 맞는 시기가 온다. 스스로 내공을 키우고 운세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 바라던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8			4			3
	5	7		3		2	9	
			1		4	8	2	
				7		6		
			3		9	7	6	
	2	9		1		3	4	
	8	6				9		1
1								

2								
9		3	2	5				4
5					9	6		1
				4	6	2		3
				5	1	3		9
8						1	3	7
3		4	9	7				8
1								

스도쿠 정답								
2	8	5	9	6	7	4	1	3
1	4	6	2	7	5	9	8	3
9	7	1	3	8	6	2	5	4
7	9	4	6	2	5	1	8	3
5	1	9	8	4	7	3	6	2
6	2	8	7	5	1	9	4	3
8	6	2	1	7	4	5	9	3
3	5	9	4	8	6	7	2	1
4	3	9	8	6	2	1	5	7
7	9	5	8	2	1	4	6	3
2	8	1	5	4	6	7	9	3
6	4	7	1	9	5	2	8	3
6	4	7	1	5	2	8	9	3
9	5	2	4	6	8	1	7	3
1	8	3	9	7	6	5	4	2
1	2	9	6	1	4	8	7	5
8	7	4	9	5	2	1	6	3
5	1	6	7	8	1	9	4	2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40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175호